

# 광주 전방·일신방직 해방 이전 시설물 보존 놓고 진통 예고

### 市, 설명회 열고 보존·개발 원칙 발표...신·구 도심 균형 발전 부지 확보 개발회사·인근 주민들 '낙후 지역 살리기' 개발 요구

광주시가 광주 전방(옛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내에 있는 해방 이전 시설물 원형을 보존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방 이전 시설물 중 일부는 원형보존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데다, 이미 해당 부지를 확보한 개발회사와 더딘 공장이전으로 잔득 불이 난 주민 중 상당수는 대규모 개발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

광주시는 11일 광주시청에서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방향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공장건축물 보존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해방 이전 시설물인 화력발전소·보일러실·고가수조는 원위치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도시 계획상 공원·녹지로 지정·보존할 계획이다.

나머지 생산시설 6곳, 저장시설 7곳, 생활시설 9곳, 관리시설 5곳 등 해방 이후 건축물 27곳은 역사·장소·문화 등 가치 평가를 거쳐 활용 가치가 높은 시설은 보존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장소적 가치가 높은 시설은 원위치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보존은 원형, 부분, 활용 방식으로 하고 원위치, 이전 보존 여부는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전할 경우에는 디지털 가상 공간을 마련하거나 전사·관람 시설을 별도로 마련해 보존한다.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건축이 시작돼 오늘날까지 변화하면서 지역의 산업화와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고 근현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건축물 보존과 함께 신·구 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중심 상업지로 조성하겠다는 기본 개발 계획도 밝혔다. 아파트 및 주거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의 융복합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주 간선도로는 원도심, 상무지구, 광주역 등과 연계하고 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는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인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광주전과 연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 용지는 통학 여건이 양호한 위치에 확보하고 대규모 교통 유발 시설에 대한 주차장 확보 등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 기여는 사업부지 내 토지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건축가, 문화재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한 기획단(TF)을 구성해 개발·보존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도시건축 등 심의를 거쳐 보존·개발안을 업체에 통보하고 분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를 확보한 개발회사측에선 해



광주시는 광주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에 있는 해방 이전 시설물 원형을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개발회사 등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전남 방직과 일신방직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방 이전 시설물 중 일부 보존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그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시설물 보존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근 주민의 반응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주민은 오랜 기간 전방·일신방직 가동으로 각종 환경오염 피해는 물론 지역개

발 지역에 따른 땅값하락 등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신속한 공장 이전과 함께 대규모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광주에서 다른 지역은 모두 개발돼 땅값이 오르고 깨끗한 주거지로 바뀌었지만, 임동 일

대만 방직공장 때문에 낙후한 1980년대 모습"이라며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거주민의 개발 의견부터 경청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AI·자동차 등 9개 기업과 573억 투자협약 체결

### 345명 고용창출 기대

광주시는 1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내 9개 기업과 총 573억원의 투자와 340여명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용섭 시장과 투자유치기업 9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모아에스엔피·와이에스피·블루아이·로한·시지바이오·펠스나인·카테일미디어·

픽보드·다윈디엔에스는 광주에 자동차·인공지능·의료·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의 제조 공장과 연구소를 짓는다. 일부는 투자를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마쳤으며, 나머지 기업도 부지 물색 등 투자를 준비 중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사업방향과 내용 등을 살펴보면 혁신적인 경영철학과 거침없는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모습이 광주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9개 기업의 투자협약이 후회없는 선택이 될 수 있

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169개 기업과 1조 7749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으며, 신규 고용인원만 5800여명에 이른 다.

광주시는 투자협약 기업이 조기에 실투자를 하도록 투자 장요인 해결과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는 등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지역 푸드플랜 구축 전국 최다 선정

### 나주·함평·장성·신안 4곳 지역 먹거리 선순환 강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공모에서 전남도내 나주, 함평, 장성, 신안 등 4곳의 시군이 선정됐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은 푸드플랜을 미구축한 지자체에 푸드플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용,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에는 거버넌

스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관계자 교육 등 경상적 경비를 지원한다.

함평과 신안은 푸드플랜 계획수립 비용으로 각각 1억원, 나주와 장성은 거버넌스 활성화 비용으로 각각 1400만 원,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 건강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 증대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시군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는 전남도를 비롯해 순천, 나주, 해남, 강진 등 13곳이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지를 공모 방식으로 뽑아 5년간 지원한다. 전남에선 2019년 나주·해남·장성, 2021년 순천이 선정됐으며, 저온 유통체계 구축, 직매장 설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30개 사업에 대해 5년에 걸쳐 국비 총 182억원을 순차적으로 지원받는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부장은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1차적으로 소비하게 만들어 도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한국에너지공대 지역인재 도입 재촉구

### 이현재 전남도의원

한국에너지공대(켄텍)가 올해 입시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인재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와 도교육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현재 의원(목포4)은 지난 10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에는 에너지공과대 지원과가 있고 15명의 직원이 켄텍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매년 100억 씩 총 1000억을 향후 지원할 예정이다"며 "그런데도 켄텍은 올해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도입을 하지 않았고 내년 입시요강에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육성은 대학관

계자나 중앙부처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전남의 모든 공직자나 지방정치인들은 오직 100% 전남도민과 학생을 위한 자세로 전남 학부모의 마음을 대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전남 공직자만이라도 전남만 생각해야 한다"며 "켄텍의 탄생은 전남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전남이 없으면 켄텍도 없었다. '약무전남 시무 켄텍'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울산과기원도 지역 인재전형을 도입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수차례 켄텍에 지역인재전형 도입을 요청했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상용 전남도 에너지공과대 지원과장 역시 "내년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도입을 위해 도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완도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콘퍼런스'

전남도는 11일 완도 생활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콘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열어 모두가 행복한 전남 복지 실현을 다짐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이 주최하고 완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해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모두가 행복한 전남 복지, 함께 가요!'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제8회째인 콘퍼런스에서는 유공자 표창, 슬로건 퍼포먼스, 주제강연, 우수사례 발표, 민관 협력 라이브 퀴즈쇼 등을 진행했으며,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300여 명의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예 능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